

# The Effects of the Attitude of the Elderly to the Job on the Successful Aging : Comparisons of Gender Differences

##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남녀 노인 비교

Eun-Jin Hong<sup>1</sup>, Yun-Jeong Kim<sup>2</sup>

홍은진<sup>1</sup>, 김윤정<sup>2</sup>

<sup>1</sup> Doctor, Dept. of the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h-eun73@hanmail.net

<sup>2</sup>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woyun2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Yun-Jeo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 the effects of the attitude of the elderly who live in the community to the job on the successful aging. We used 403 questionnaires for seniors over 60 years old and For the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hi square test, t-test, and one-way ANOVA ,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applied using SPSS Win 24.0 versio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ttitude of the overall elderly to the job and successful aging were 3.759 and 3,367 respective, which were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In terms of gender of the elderly, males showed higher successful aging. showed positively if the academic background was over middle school graduate and they perceived the health status and family relation as ‘good’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showed higher if the academic background was over middle school and they perceived the health status, Third, the attitude of the female elderly to the job showed positively if the age was over 60s; the academic background was over university graduate; in case of those with spouses; those who perceived the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and family relation as ‘good’; and those with rural residential area.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showed higher if the age groups were 60s and 70s; the academic background was over middle school graduates; in case of those with spouses; and those who perceived the health status, economic status, and family relation as ‘good.’ Third, in both male and female seniors, their attitudes towards work influenced successful aging. In other words,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 towards work, the higher the level of successful aging.

**Keywords:** Attitude of the Elderly to the Job, Successful Aging, Hierarchical Regression,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403부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SPSS Win 24.0 version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t-test, oneway ANOVA,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759점, 성공적 노화는 3.367점으로 중앙값 이상의 높은

Received: January 24, 2023; 1<sup>st</sup> Review Result: March 11, 2023; 2<sup>nd</sup> Review Result: April 06, 2023  
Accepted: April 30, 2023

수준이었다. 노인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가 높았다. 둘째, 남성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는 학력이 중.고졸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와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긍정적이었다. 성공적 노화 수준은 학력이 중.고졸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 경제상태와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높았다. 여성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60대인 경우, 학력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거주지가 농·어촌인 경우에 긍정적이었다. 성공적 노화는 연령이 60대와 70대인 경우, 학력이 중.고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높았다. 셋째,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다.

**핵심어:**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 위계적 회귀분석, 남녀 노인 간의 차이

## 1. 서론

인간은 일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 목적을 이루고 소통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한다[1]. 또한 노인에게 일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수단이며 경제적 자립으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게 하여 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2].

노년기에도 일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이러한 일에 대한 태도는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노년기 일에 대한 태도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단지, 여러 학자에 의해 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개념화와 측정 도구가 개발되면서 일에 대한 태도에 독립·자립의 중요성, 검약, 여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등을 근로 윤리에 포함하면서[3], 일에 대한 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가 드물었다. 그간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를 노인 혹은 노화에 대한 전반적 태도의 한 부분으로 측정[4]함에 따라,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취업여부 등 일과 관련된 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노년기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의 경제활동은 안정된 소득의 확보, 건강유지의 효과, 사회적 소외감과 고독감의 억제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삶의 만족도와 성공적 노화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5].

한편,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는 노인의 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과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전통적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이 달랐다[6]. 이에 따라 현재의 노인세대의 경우 남성은 가장으로서 역할 의식이 강하고, 여성은 가족 지향적인 특성이 높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노년기에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남녀 노인 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7]. 먼저 일에 대한 태도에서의 남녀 간 차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에서 직업을 가지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자신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위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일 영역에서의 성공이나 업무수행보다 가정영역에 집중된다고 주장하였다. 서미경[8]도 중·고령기 여성의 재취업 경험과 일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중·고령 여성의 경우 생계형 취업이 대부분이며, 여성과 연령이라는 이중적 굴레를 가지며, 중·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부로서 다중역할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이들을 특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중·고령 여성이 가지는 가사 책임의 부담감과 더불어 생계를 위한 취업으로 인해 남성과는 다른 일에 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들[6-8]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별 간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 성별 간의 차이가 아니라 성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는 주장은 있으나, 어떤 주장이든 간에 남녀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 노화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성공적 노화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에서의 남녀간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남녀 노인 간의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남녀 노인의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노인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규범인 60세를 따랐다. 설문조사를 위해서 충청남도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월까지 설문조사 하였다. 총 450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에서 60세 미만인 경우,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 등 47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03부를 설문조사에 활용하였다.

### 2.2 측정도구

일에 대한 태도는 정진경[1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3개 하위영역으로 독립(자립), 근면과 성공, 일 자체 등 1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 (매우 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문항 중 8번 문항을 제외한 총 10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제외한 8번 문항은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일에 대한 강요를 의미한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10개 문항의 합산 평균점수를 활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9다.

성공적 노화는 안정신, 강인, 김윤정[11]의 성공적 노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안정신 등[11]은 중노년기 성인들이 생각하는 25문항짜리 성공적 노화 척도를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25문항의 합산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의 안녕, 심리·사회적 안녕, 자기효능감 등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58이다.

### 2.3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 과 같다.

[표 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N=403>

		N(%)
성별	남	132(32.8)
	여	271(67.2)
연령	60세~69세	243(60.3)
	70세~79세	108(26.8)
	80세 이상	52(12.9)
학력	무학 및 초졸	104(25.8)
	중.고졸	192(47.6)
	대졸이상	107(26.6)
배우자 유무	유 배우자	269(66.7)
	무 배우자	134(33.3)
건강상태	나쁘다	77(19.1)
	보통이다	172(42.7)
	좋다	154(38.2)
경제상태	나쁘다	86(21.3)
	보통이다	185(45.9)
	좋다	132(32.8)
가족관계	나쁘다	12(3.0)
	보통이다	151(37.5)
	좋다	240(59.6)
거주지	도시	49(12.2)
	농어촌	354(87.8)

## 2.4 연구대상의 특성

SPSS Win 24.0 ver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교차분석, t-test, oneway ANOVA,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의 일반적 경향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의 일반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표 2].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759점으로 중앙값인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수준이었다. 성공적 노화는 5점 만점에 3.367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자인 노인들의 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고 성공적 노화 수준은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기준은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 [표 2]를 보면 왜도의 절댓값은 .106에서 .278까지이고, 첨도의 절댓값은 .086에서 1.590점으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일에 대한태도, 성공적노화의 일반적경향

[Table 2] General Trends in Attitude of the Job, Successful Aging <N=403>

	M(S.D.)	왜도 통계량(표준오차)	첨도 통계량(표준오차)
일에 대한 태도	3.759(0.633)	-.797(0.122)	1.590(0.243)
성공적 노화	3.367(0.646)	-.109(0.122)	.086(0.243)

### 3.2. 남녀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노인의 성별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다( $t=2.792, p<.01$ ). 그러나 노인의 성별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다음으로는 노인의 성별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표 3]. 노인의 성별에 따른 학력, 배우자의 유무, 건강상태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학력의 차이를 보면, 무학 및 초졸 노인 중 여성 노인은 82.7%, 중.고졸은 69.3%로 여성 노인 비율이 더 높으나,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남성 노인이 51.4%, 여성 노인은 48.6%로 남성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아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chi^2=28.516, p<.001$ ).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 유 배우자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런데 유 배우자 노인 중 남성 노인은 39.8%이고, 여성 노인은 60.2%이며, 무 배우자 노인 중 남성 노인은 18.7%, 여성 노인은 81.3%로,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유 배우자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chi^2=18.114, p<.001$ ). 마지막으로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나쁘다’인 경우에는 여성 노인이 79.2% 남성노인이 20.8%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4배수에 달하지만, ‘보통이다’와 ‘좋다’인 경우에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2배수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에 여성노인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서,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chi^2=6.378, p<.05$ ). 그러나 노인의 성별에 따른 연령, 경제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남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between Male and Female Older Adults

<N=403>

		성별		total	$\chi^2$
		남성 노인 N(%)	여성 노인 N(%)		
연령	60세~69세	84(34.6)	159(65.4)	243(100.0)	4.970
	70세~79세	38(35.2)	70(64.8)	108(100.0)	
	80세 이상	10(19.2)	42(80.8)	52(100.0)	
학력	무학 및 초졸	18(17.3)	86(82.7)	104(100.0)	28.516***
	중.고졸	59(30.7)	133(69.3)	192(100.0)	

	대졸이상	55(51.4)	52(48.6)	107(100.0)	
배우자 유무	유 배우자	107(39.8)	162(60.2)	269(100.0)	18.114***
	무 배우자	25(18.7)	109(81.3)	134(100.0)	
건강상태	나쁘다	16(20.8)	61(79.2)	77(100.0)	6.378*
	보통이다	63(36.6)	109(63.4)	172(100.0)	
	좋다	53(34.4)	101(65.6)	154(100.0)	
경제상태	나쁘다	24(27.9)	62(72.1)	86(100.0)	3.268
	보통이다	69(37.3)	116(62.7)	185(100.0)	
	좋다	39(29.5)	93(70.5)	132(100.0)	
가족관계	나쁘다	6(50.0)	6(50.0)	12(100.0)	3.843
	보통이다	42(27.8)	109(72.2)	151(100.0)	
	좋다	84(35.0)	156(65.0)	240(100.0)	
거주지	도시	19(38.8)	30(61.2)	49(100.0)	.918
	농어촌	113(31.9)	241(68.1)	354(100.0)	

\*p<.05, \*\*\*p<.001

### 3.3 남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차이

남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표 4], [표 5].

먼저, 남성 노인의 학력, 건강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학력에 따라서는 중.고졸 및 대졸 이상의 노인이 무학 및 초졸 노인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F=7.441, p<.01),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Scheffe에 의한 사후검증이 유의하지 않아 평균으로 설명하면, 건강상태를 ‘좋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보통이다’, ‘나쁘다’ 순이었다(F=3.931, p<.05). 가족관계에 따라서도 Scheffe에 의한 사후검증이 유의하지 않아 평균으로 설명하면, 자신의 가족관계를 ‘좋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일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보통이다’, ‘나쁘다’ 순이었다(F=5.949, p<.01). 그러나 노인의 연령, 결혼상태, 경제상태, 거주지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남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Work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lder Men<N=132>

		N	M	S.D.	t/F값	Scheffe's
연령	60세~69세	84	3.877	0.664	1.192	N. S.
	70세~79세	38	3.718	0.573		
	80세 이상	10	4.000	0.452		
학력	무학 및 초졸	18	3.406	0.639	7.441**	a
	중.고졸	59	3.803	0.661		b
	대졸이상	55	4.024	0.507		b
배우자 유무	유 배우자	107	3.840	0.625	-.027	-
	무 배우자	25	3.844	0.651		

건강상태	나쁘다	16	3.906	0.554	3.931*	a
	보통이다	63	3.687	0.652		a
	좋다	53	4.004	0.581		a
경제상태	나쁘다	24	3.804	0.530	1.841	N. S.
	보통이다	69	3.764	0.715		
	좋다	39	4.000	0.483		
가족관계	나쁘다	6	3.517	0.794	5.949**	a
	보통이다	42	3.614	0.774		a
	좋다	84	3.977	0.484		a
거주지	도시	19	3.884	0.577	.324	-
	농어촌	113	3.834	0.637		

\*p<.05, \*\*p<.01, N.S. : No Signification

다음으로 남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5], 남성 노인의 학력,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성공적 노화 수준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고졸 및 대졸 이상의 노인이 무학 및 초졸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더 높았고(F=8.800, p<.001).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 및 ‘보통이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더 높았다(F=9.802, p<.001).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제상태를 ‘좋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 성공적 노화 수준이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나쁘다’ 순이었다(F=13.790 p<.001).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보통이다’와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더 높았다(F=17.655, p<.001). 그러나 남성 노인의 연령, 배우자의 유무, 거주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남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Table 5] Differences in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lder Men  
<N=132>

		N	M	S.D.	t/F값	Scheffe's
연령	60세~69세	84	3.535	0.556	0.866	N. S.
	70세~79세	38	3.453	0.620		
	80세 이상	10	3.308	0.394		
학력	무학 및 초졸	18	3.051	0.498	8.800***	a
	중.고졸	59	3.477	0.534		b
	대졸 이상	55	3.657	0.545		b
배우자 유무	유 배우자	107	3.576	0.517	3.579	-
	무 배우자	25	3.146	0.635		
건강상태	나쁘다	16	3.063	0.570	9.802***	a
	보통이다	63	3.430	0.536		b
	좋다	53	3.701	0.511		b
경제상태	나쁘다	24	3.120	0.626	13.790***	a
	보통이다	69	3.447	0.509		b

		N	M	S.D.	t/F값	Scheffe's
가족관계	좋다	39	3.808	0.453	17.655***	c
	나쁘다	6	2.920	0.610		a
	보통이다	42	3.190	0.579		a
	좋다	84	3.687	0.456		b
거주지	도시	19	3.693	0.664	1.666	-
	농어촌	113	3.461	0.543		

\*\*\*p<.001, N.S. :No Signification

### 3.4 여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차이

여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표 6],[표 7].

여성 노인의 연령, 학력,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 거주지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먼저 연령에 따라서는 60세~69세 노인이 8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F=3.796, p<.05),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의 노인이 무학 및 초졸 노인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F=6.911, p<.01).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 배우자 노인이 무 배우자 노인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t=3.891, p<.001),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F=6.756, p<.01).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제상태를 ‘보통이다’와 ‘좋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고(F=5.800, p<.01),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보통이다’와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F=14.465, p<.001). 마지막으로 거주지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일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이었다(t=-2.519, p<.05).

[표 6] 여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에 대한 태도의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s Work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lder Women <N=271>

		N	M	S.D.	t/F값	Scheffe's
연령	60세~69세	159	3.796	0.588	3.796*	b
	70세~79세	70	3.667	0.709		ab
	80세 이상	42	3.510	0.623		a
학력	무학 및 초졸	86	3.555	0.644	6.911**	a
	중.고졸	133	3.731	0.652		ab
	대졸이상	52	3.958	0.474		b
배우자 유무	유 배우자	162	3.844	0.545	3.891***	-
	무 배우자	109	3.532	0.707		
건강상태	나쁘다	3.511	0.682	.08728	6.756**	a
	보통이다	3.689	0.569	.05455		ab
	좋다	3.875	0.633	.06297		b



경제상태	나쁘다	3.489	0.759	.09639	5.800**	a
	보통이다	3.756	0.486	.04513		b
	좋다	3.825	0.670	.06952		b
가족관계	나쁘다	2.983	0.523	.21357	14.465***	a
	보통이다	3.538	0.662	.06341		b
	좋다	3.873	0.562	.04497		b
거주지	도시	3.447	0.743	.13567	-2.519*	-
	농어촌	3.752	0.611	.03937		-

\*p<.05, \*\*p<.01, \*\*\*p<.001

다음으로 여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를 살펴보면[표 7], 여성 노인의 연령, 학력,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수준에서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라서는 60세~69세와 70세~79세 노인이 80세 이상의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더 높았고(F=27.869, p<.001), 학력에 따라서는 중.고졸 및 대졸 이상의 노인이 무학 및 초졸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더 높았다(F=20.743, p<.001).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 배우자 노인이 무 배우자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더 높았고(t=6.177, p<.001),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나쁘다’순이었다(F=48.884, p<.001).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자신의 경제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나쁘다’순이었다(F=42.477, p<.001). 가족관계에 따라서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노인에 비해 성공적 노화 수준이 더 높았다(F=25.435, p<.001). 그러나 여성 노인의 거주지에 따른 성공적 노화 수준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7].

[표 7] 여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차이

[Table 7] Differences in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Older Women

<N=271>

		N	M	S.D.	t/F값	Scheffe's
연령	60세~69세	159	3.467	0.601	27.869***	b
	70세~79세	70	3.315	0.737		b
	80세 이상	42	2.670	0.417		a
학력	무학 및 초졸	86	2.950	0.605	20.743***	a
	중.고졸	133	3.433	0.672		b
	대졸이상	52	3.562	0.554		b
배우자 유무	무 배우자	162	3.499	0.626	6.177***	-
	유 배우자	109	3.015	0.642		-
건강상태	나쁘다	61	2.835	0.537	48.884***	a
	보통이다	109	3.179	0.575		b
	좋다	101	3.723	0.608		c
경제상태	나쁘다	62	2.914	0.591	42.477***	a
	보통이다	116	3.163	0.540		b
	좋다	93	3.742	0.646		c
가족관계	나쁘다	6	2.800	0.274	25.435***	a

	보통이다	109	3.004	0.542		ab
	좋다	156	3.534	0.677		b
거주지	도시	30	3.160	0.863	-1.244	-
	농어촌	241	3.322	0.647		

\*\*\*p<.001

### 3.5 남녀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3.5.1 남성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남성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전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공적 노화수준이 높았다( $r=.435, p<.001$ )(표로 제시하지 않음).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따라, 1단계에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 거주지 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일에 대한 태도를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의 7개의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35.9% 설명하였고, 모델은 유의하였다( $F=9.934, p<.001$ ).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beta=.199, p<.05$ ),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beta=.285, p<.01$ ) 성공적 노화가 높아졌으며, 가족관계가 건강상태보다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일에 대한 태도 변수를 8개 변수의 설명력은 43.4%로 7.4%가 향상되었으며, 모델도 유의하였다( $F=11.778, p<.001$ ). 2단계에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을 제외하고 설명하면,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노인의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아졌다( $\beta=.299, p<.001$ ).

[표 8] 남성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Table 8] Effects of older Men's Work Attitudes on Successful Aging

		B	$\beta$	t 값	B	$\beta$	t 값
1단계	(상수)	1.886		3.852***	1.096		2.183*
	연령	-.002	-.020	-.260	-.001	-.018	-.242
	학력(1=대졸이상)	.164	.144	1.886	.091	.080	1.084
	배우자유무(1=배우자있음)	.109	.076	.944	.175	.122	1.585
	건강상태	.144	.199	2.385*	.122	.167	2.119*
	경제상태	.115	.159	1.830	.124	.171	2.085*
	가족관계	.186	.285	3.304**	.123	.189	2.227*
	거주지(1=도시)	.145	.091	1.228	.160	.100	1.436
2단계	일에 대한 태도				.270	.299	4.022***
		F값 = 9.934*** R2 = .359			F값=11.778*** R2= .434 R2 변화량 =.074		

\*p<.05, \*\*p<.01, \*\*\*p<.001

### 3.5.2 여성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여성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전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다( $r=.400, p<.001$ )(표로 제시하지 않음).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따라, 1단계에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 거주지 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일에 대한 태도를 추가로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의 7개의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35.9% 설명하였고, 모델은 유의하였다( $F=33.381, p<.001$ ). 개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beta=-.205, p<.001$ ),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beta=.306, p<.001$ ),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beta=.176, p<.01$ ),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beta=.235, p<.001$ ),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beta=-.147, p<.01$ ) 성공적 노화가 높아졌으며 건강상태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고, 가족관계, 연령, 경제상태, 거주지 순이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을 하였기 때문에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설명력을 제외하고 설명하면,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공적 노화가 높아졌다( $\beta=.185, p<.001$ )

[표 9] 여성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Table 9] Effects of older Women's Work Attitudes on Successful Aging

		B	$\beta$	t 값	B	$\beta$	t 값
1단계	(상수)	2.484		5.975***	1.930		4.481***
	연령	-.017	-.205	-3.586***	-.017	-.200	-3.575***
	학력(1=대졸이상)	.036	.021	.431	.007	.004	.091
	배우자유무(1=배우자있음)	.100	.073	1.312	.060	.044	.800
	건강상태	.234	.306	5.816***	.221	.289	5.611***
	경제상태	.140	.176	3.327**	.144	.181	3.513***
	가족관계	.215	.235	4.610***	.172	.187	3.653***
	거주지(1=도시)	-.316	-.147	-3.206**	-.242	-.113	-2.471*
2단계	일에 대한 태도				.197	.185	3.811***
				F값 = 33.381*** R2 = .470	F값=32.526*** R2= .498 R2 변화량 =.028		

\* $p<.05$ , \*\* $p<.01$ , \*\*\* $p<.00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60세 이상의 노인 40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SPSS Win 24.0 ver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 통계분석, 교차분석, t-test, oneway ANOVA,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첫째, 전체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3.759점, 성공적 노화는 3.367점으로 중앙값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측정 도구를 쓴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김선희[12]의 연구에서 일에 대한 태도는 3.773점이었고, 이지모[13]의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는 3.571점이었다.

둘째, 남성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는 학력이 중·고졸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와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긍정적이었다. 성공적 노화 수준은 학력이 중·고졸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 경제상태와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높았다. 여성 노인의 일에 대한 태도는 연령이 60대인 경우,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 거주지가 농·어촌인 경우에 긍정적이었다. 성공적 노화는 연령이 60대와 70대인 경우, 학력이 중·고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를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높았다.

이처럼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 60대나 7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속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고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좋은 경우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약화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14][15]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더 나은 노인과 비교하여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배우자 노인이 무배우자 노인과 비교하여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다.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은 심각한 절망감, 좌절,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14-16]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노인의 교육수준 역시 일에 대한 태도나 성공적 노화를 높이는 요소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유리하며, 교육수준은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에서도 긍정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16-18],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관련 선행연구[2][19][20]과 일치한다.

셋째,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두 일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쳤다. 즉,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의 일, 일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21]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일을 통해서 노인을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주체성 있는 노인의 삶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생산적인 기여[22]를 하기 때문에, 생의 마지막 수준까지도 노인이 필요로 하고 그 의미를 갖고 활동하고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방안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M. K. Choi, H. T. Jung,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Social Worker on the Work (Labo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Disability & Employment, (2015), Vol.25, No.4, pp.111-135.
- [2] J. Y. Lee, The Influence of the Meaning of Work on the Meaning of Life in the Elderly Work Project Participant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Support Expectation Attitude, Chosu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3008915>

- [3] H. J. Kim, H. S. Song, Analysis of Attitude Changes of Elementary Students toward Work through School Garden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Research (SKPAE)*, (2013), Vol.19, No.4, pp.103-127.  
DOI: <https://doi.org/10.17055/jpaer.2013.19.4.103>
- [4] J. Weber, P. Angerer, A. Muller, Individual Consequences of Age Stereotypes on Older Workers: A Systematic Review, *Zeitschrift für Gerontologie und Geriatrie*, (2019), Vol.52, pp.188-205.  
DOI: <https://doi.org/10.1007/s00391-019-01506-6>
- [5] J. D. Kwon, J. Y. Cho,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00), Vol.20, No.3, pp.61-76.  
Available from: <http://www.tkgs.or.kr>
- [6] J. A. Kang, A Meta 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the Korean Elderly' Success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5)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3847600>
- [7] O. H. Kim, Y. H. Seo, A Study on the Awareness of Aging and Preparation for Successful Aging of Former Baby Boomers: Focused on Non-mate Males in Low-Income Group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15), Vol.20, No.1, pp.87-111.
- [8] M. K. Seo,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Re-Employment Experience and Its Meaning of Pre-Elderly Women's Lives, *Social Welfare Policy*, (2012), Vol.39, No.1, pp.199-226.  
DOI: <https://doi.org/10.15855/swp.2012.39.1.199>
- [9] K. H. Park, A Study on the Factors of Influencing on Successful Aging,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issertation, (2005)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0312228>
- [10] J. K.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and the Factors Influencing on Welfare Dependency among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in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4)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9285344>
- [11] J. S. An, I. Kang, Y. J. Kim, Development of Successful Aging Measurement for Korean mid to Later adul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9), Vol.13, No.4, pp.225-245.  
Available from: <http://www.kafr.or.kr>
- [12] S. H.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lf-respect on Self-help Participants' Attitudes toward Work,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octoral Dissertation, (2020)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5630718>
- [13] J. M. Lee, The effect of Semi-Elderly Preparation for Retirement on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resilience, Calvi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21)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5836191>
- [14] S. J. Kwon, The Effects of Social Activity on the Successful Aging of the Senior, DaeJeon University, Master Thesis, (2013)
- [15] J. H. Noh, Successful Aging Model of Rural Elderly Women, Ewha Woman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6)
- [16] H. J. Kang, The effects of aging anxiety on successful aging the elderly: Comparing elders Living alone with ones not Living alone, *Elderly Welfare Research*, (2012), No.57, pp.191-220.  
Available from: <http://www.koreawa.or.kr>
- [17] E. K. Kang, The Effect of the Emotion Regulation Abili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Mokwo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3)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3352165>
- [18] Y. Y. Ba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f the Elderly on Successful Aging; Focusing on gender comparison, Daegu University, Master Thesis, (2015)  
Available from: <http://www.riss.kr/link?id=T14002504>
- [19] J. W. Rowe,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1997), Vol.37, No.4, pp.433-440.  
DOI: <https://doi.org/10.1093/geront/37.4.433>

- [20] E. H. Jang, A Study on the Effect of Preparing Senior Life to the Successful Aging : Focusing on comparing seniors using social welfare center with seniors do not, Cheongju University, Master Thesis, (2014)
- [21] H. B. Hong, Tauarded Ana Definition of Sukkesful Aging Traug Tour Critical Litterature review,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Thesis, (2002)
- [22] S. C. Kang, G. C. Na, M. G. Lee, S. E. Jo, Medium- and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Elderly Jobs Project,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08)  
Available from: <https://kordi.or.kr/main.do>